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양 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함

성경: 행 20:18-38

I.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것이다 — 뱀전 5:1-4.

A.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기쁨이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어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와 확장인 그분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렘 2:13, 요 3:29-30, 엡 1:22-23, 3:16-19, 21.

1. 우리는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기보다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상들을 예표하는) 웅덩이들을 팸으로써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다 — 렘 2:13.

2.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한 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 겔 14:3, 요일 5:21.

3. 우리의 평안, 안전, 건강,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시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 데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흡수하고 마시고 먹고 동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는 것이다 — 고전 1:9, 5:7-8, 12:12-13, 렘 2:13.

B.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새롭게 다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을 알도록 도와야 하고, 빛나간 믿는 이들을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누리는 단순성 안으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 — 고후 11:2-3, 1:24, 계 2:4, 7.

1.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교회생활의 내용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2. 고린도전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누리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 — 고전 1:2, 9, 24, 30, 2:2, 5:7-8.

II. 우리는 반드시 양 떼의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본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써, 그리스도

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았다 — 벤전 5:3, 빌 1:19-21상, 행 9:4-5, 15, 26:19, 딤편 1:16.

- A.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 행 9:1-19, 25-27, 22:14-15, 엡 4:20-21.
- B.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리스도로 흘러넘쳤다 — 행 9:15, 고후 4:7, 엡 1:22-23, 3:19.
- C.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 행 9:11, 13:1-3, 14:23, 16:13, 25, 20:36, 21:5, 22:17, 28:8, 엡 6:18, 골 4:2.
- D. 바울은 몸을 의지하면서,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모든 것을 하였다 — 행 9:11-12, 17-18, 25-27, 고전 1:1, 12:14-27.
- E.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다 — 행 9:14, 21, 22:16, 딤후 2:22, 롬 10:12-13, 빌 2:9-11.
- F.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고난을 견디는 데 넘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인간 생활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수행된 고난의 사역이었다 — 요 7:37-39, 행 9:16, 16:7, 22-34, 빌 3:10, 골 1:24, 고후 6:4, 11:23, 히 6:19-20, 13:13.
- G. 바울은 그의 연합된 영(그의 사람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신성하신 영) 안에서 살았다 — 행 17:16, 19:21, 롬 8:4, 6, 16, 고전 6:17.
- H.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의 존재를 위해 기쁨의 영으로 충만했고, 경륜적으로 그의 기능을 위해 능력의 영으로 충일했다 — 행 13:9, 52, 엡 5:18.
- I. 바울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항상 간직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였다 — 행 23:1, 24:16, 딤편 1:19, 3:9.
- J.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다 — 행 16:25, 27:35, 빌 4:4, 골 3:16, 살전 5:16-18.
- K. 바울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땅끝까지 확산했다 — 행 9:20, 27, 26:22-29, 28:31, 1:8, 살전 2:2, 비교 롬 15:24, 28.
- L.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도들을 소중히 보살폈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 원한 경륜에 관한 모든 진리들로 성도들을 보양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생활 안에서 나타내 보였다 — 행 20:18-38, 살전 2:1-12.
- M.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나의 본, 곧 장로들이 교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본이었다 — 행 20:27-38.
 - 1. 그는 노예로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시련을 겪으며 주님을 섬겼다 — 행 20:19.
 - 2. 그는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의결,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목양했다 — 행 20:20, 26-27.
 - 3. 바울의 부담은 장로들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뛰어난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아, 하나님처럼 그들도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이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훈계했다 — 행 20:28.
 - 4. 바울은 신성한 건축물을 파괴하는 이들, 곧 양 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 같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관해 장로들에게

경고했다 — 행 20:29-30.

5. 바울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했으며, 장로들에게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 행 20:31.
 6.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몸에 의해 몸을 건축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기능을 발휘하는 본을 보여 주었다. 즉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생명의 분량에 따라 생명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여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하는’ 본을 보여 주었다 — 엡 4:11-16.
- N. 바울의 네 번째 사역 여행(행 27-28장)은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의 생활을 보여 주는데, 그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 빌 1:19-21상, 3:8-9, 14, 4:13.
1.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의 영역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엄 있는 삶이었다 — 행 28:5-9.
 2.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신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3. 바울은 자신의 생활과 사역에서 참되신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들을 거치셨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살고 계셨다 — 갈 1:15-16, 24, 2:20, 3:14, 비교 행 28:6.
 4. 주님은 사도를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뿐만 아니라(행 27:24),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다(22, 25절). 더 나아가 이제 평온한 육지에서 주님은 그를, 미신적인 사람들의 눈에 신기한 매력을 지닌 사람만이 아니라(28:1-6), 그들의 치료자와 기쁨이 되게 하셨다(7-10절).
 5.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환영과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받은 사랑스러운 돌봄(행 28:13-15)은 초기에 교회들과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몸의 생활을 보여 준다.
 - a.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가 결박당한 죄수로서 사탄이 점령한 제국의 어두운 수도(首都)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엡 6:20, 마 28:18-19)로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곧 몸의 생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부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 b. 그는 사탄의 제국(옛 창조물에 속한 사탄적인 혼돈) 안에서 종교의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교회생활(새 창조물을 위한 신성한 경륜)을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 O.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실재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 행 28:3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장로 직분의 봉사와 책임

우리는 장로 직분에 대해서 교통할 것이다. 성도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장로 직분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장로 직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형제들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들의 책임에 신실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 보내야 하고,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 장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밀레도에서 한 말이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몇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에게 오도록 청하였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 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이 믿는 이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동시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두 무리는 대립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증오했으며, 심지어 바울과 그의 사역을 손상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서로 공모할 정도로 증오했다.

장로들에게 본이 된 바울

바울은 모든 장로들에게 진정한 본이다. 그는 참된 본이다. 비록 그 자신은 결코 장로가 된 적이 없었지만, 그는 그가 훈련시켰던 장로들에게 모범과 귀감과 본보기였다. 그래서 그가 자신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의 기대는 모든 장로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며 자신이 행한 것을 본받는 것이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다. 장로들은 모두 노예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들은 존엄하거나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계급도 지위도 없다. 오직 겸손과 노예의 신분만이 있다. 둘째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했다. 겸손 뒤에는 기쁨과 행복 대신에 눈물이 있다. 그런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을 손상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다른 이들로로부터 온 시련을 겪었다고 말했다.

노예로서 섬김

장로들은 단지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노예로서 주님을 섬겨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모든 자유를 잃어야 한다. 사실상 장로 직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는 노예들이다.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간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장로들은 그들의 주인의 대가족을 섬기는 노예의 부담을 반드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노예로서 모든 겸손으로 행동하고 일하며 심지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낙인처럼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권리가 없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분만이 어떤 것을 자랑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는 겸손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겸손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자랑하는 것은 쉽다. 겸손해지는 것과 심지어 겸허하게 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다.

장로들이 자신의 보살핌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눈물은 우리의 겸손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겸손해져야 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이 말한 이 부분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일 뿐 아니라 또한 예언 혹은 예견의 말씀이다. 그것은 권면일 뿐 아니라 예언인 것이다. 이들 몇 절에 묘사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한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의 일과 사역과 바울까지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 그래서 시련이 따라왔다.

장로들은 많은 안락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괴로움과 시련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 면으로, 우리 모두는 장로 직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어떤 종류의 시련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울의 때에 시련은 무신론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곧 그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왔다.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목양하고 가르침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은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다. 전파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남김없이 전파하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했다.

바울은 자신의 책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믿는 이들을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이 집 저 집에서 개별적으로 가르쳤다.

이제 장로들은 더 많이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장로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다. 이 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실제로 목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목양의 문제와 함께한다. 목양은 합당한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장로들은 단지 교회 사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며, 광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부차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은 사무적인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로의 주된 책임은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의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는 목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목양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또한 가르쳐야 한다(딤후 3:2, 5:17). 장로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들은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한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로들은 그들에게 몇 가지 유익한 절들을 읽어 주어야 하고, 몇 가지 정의를 내려 주며,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럴 때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고 세워지며 견고하게 되고 건축될 것이다.

목양하는 것은 단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충분하지도 않고 주된 일도 아니다. 주된 책임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을 위하여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본을 세웠다. 헬라어로 ‘이 집 저 집에서’는 ‘집들을 따라서’를 의미한다. 만일 방문해야 할 어떤 집이 있다면 장로들은 가야 한다. 만일 방문해야 할 집이 열 집이라면, 그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기 위하여 각 집에 가야 한다.

대략 오십여 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주님의 일 안에 있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과 성도들의 가정에 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사람들의 환경의 참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럴 때 장로들은 그들을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는 잔디를 깎고, 집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며, 창문과 카펫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만,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야 한다.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목양한다면, 하늘에 이러한 기록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선포함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관심사를 돌보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의결과 계획과 경륜을 선포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가르쳤다.

이와 같이 모든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앎으로 인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를 견고히 잡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친절하라고 말하는 알은 가르침만을 받았을 뿐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그들 가운데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합당하고 성경적인 신성한 계시이다.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그러한 것들에 몰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말함으로써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듣는 것과 그러한 높은 부름을 받는 것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강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사람은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갖기 위해 우리에게는 높은 이상이 필요하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상은 온갖 종류의 반대와 공격을 통과하도록 그들을 강화하고 위로하며 격려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행하는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높은 이상이 부족하다.

우리가 일단 이상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일상생활에 관한 관념을 바꿀 것이다. 그러한 높은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우리의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돌볼 뿐 하나님의 영원한 권익은 많이 관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상을 단지 집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마치 교수가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에게 강의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상세하게 성도들을 개별 지도하는 가정 교사들이 필요하다.

장로 직분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세상 직장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진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직업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께 의뢰해야 할 때일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감독하고 목양함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권면했다.

그들을 장로들로 임명한 것은 의견상으로는 바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분은 성령이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라는 말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장로’는 사람을 언급하는 용어이고, ‘감독’은 장로의 책임에 대해 말한 용어이다. 감독은 부주의하거나 잠자서는 안 되며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양 떼 가운데 있는 한 명 한 명을 감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장로들은 양 떼의 필요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권면하였다. 헬라어에서 ‘사 오다’는 ‘획득하다’ 혹은 ‘얻다’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피’는 보배로운 표현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눈에 매우 소중하고 보배로운 보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이 장로들도 하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부모도 항상 그들의 귀한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는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섬세한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 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양 떼를 아끼는 것은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함으로 부드러운 관심을 갖고 양 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리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돌보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희생시킨다. 그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이리들이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30절은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밖에서 들어온 이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 세기 동안 이들 두 부류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 왔다. 바울은 한 부류를 이리에 비유하였고, 또 한 부류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어그러진 것들을 말하는 어그러진 이들에 비유하였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때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중국 본토와 대만과 미국에서의 지난 육십칠 년간의 우리의 역사에서도 있어 왔다. 로마서 16장 17절은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단지 권면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말한 것이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발생하였다(딤후 1:15).

밤낮 눈물로 권면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바울은 단지 사람들의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각 사람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우리 중 장로들은 반드시 밤낮으로 이러한 일을 할 부담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가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야 한다.

눈물로 훈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듣기는 하지만 당신의 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에 당신의 말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한 방울의 눈물이 천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것은 자매들에게 사실이다.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자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매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눈물이 두 번 언급된다. 19절은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말한다. 또 31절은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데 삼 년을 소비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훈계가 장로들에게 필요한 책임이다. *(교회 봉사에 관한 대화, 2장)*